

제 32 호 강의 평가의 효과

“강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강의 관찰“하면 효과가 있을까요? 강의 평가를 받을수록 교수는 점점 더 훌륭한 강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? 만일 그렇다면 대학교 전체의 강의 평가 점수는 매 학기 조금씩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. 과연 그럴까요?

미시간공대의 경우는 학교 전체의 강의 평가 평균 점수가 놀랍게도 지난 10년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이런 현상에 대해 원인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결론을 단정 지을 만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강의 평가의 도구가 부실한 것도 한 가지 요인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나의 견해로는 지난 10년 동안 강의 평가 점수에 큰 변동이 없는 이유는 아마도 “제로섬” 현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양극화하여 평균치 만으로는 변동이 없는 것처럼 나타난 데 있지 않을까 합니다.

다시 말해 높은 평가를 받은 교수는 강의 평가를 신뢰하고, 학생들의 반응을 존중하며, 다음 평가를 더 높이 받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아마 평가 점수가 향상되었을 것입니다. 그 반대로 강의 평가 점수가 좋지 못한 교수는 (정말 피드백이 꼭 필요한 교수들은) 평가를 보는 순간 자존심도 상하고, 원인을 자신의 교수법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돌리려고 하며, 학생들의 평가를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 점수는 더 낮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. 점점 더 향상하는 교수와 점점 더 퇴보하는 교수의 점수가 합산되면 표면상으로는 “변동없음”으로 나타난다는 해석입니다.

따라서 제 결론은 강의 평가로 통해 자신의 강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교수님에게만 강의 평가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.

실은 강의 평가를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. 첫째는 대학 행정 쪽에서 교수의 능력과 기여도를 “점수로 환산하여” 승진이나 보수 책정 같은 인사 결정을 할 때 반영하기 위한 결론지향적 목적(summative evaluation)이고, 둘째는 교수들 스스로가 강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얻기 위한 발전지향적 목적(formative evaluation)입니다.

강의 평가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. 도구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.